

광양시, 글로벌 투자 흑한기 속 200억 원 규모 투자 유치

광양시가 국내외 투자 위축 상황 속에서도 200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유치하며, 미래 먹거리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8일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식품 기업 ㈜김이가(대표 김태한)와 20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이가는 2022년 설립된 수산식품 가공 전문기업으로, 해외 시장 수요 증가에 맞춰 광양항과 지리적 접근성이 좋은 세풍항만배후단지에서 2026년 7월까지 200억 원을 투자해 수출용 조미김 생산설비 공장을 설립하고 179명의 직원을 고용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박창환 경제부지사는 “이번 협약이 전남의 식품산업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내에 입주하는 모든 기업이 전남에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기흥 광양부시장은 “‘김’이라는 명칭은 조선 인조 임금의 수라상에 오른 해조류의 맛에 감탄해, 이를 진상한 김여의 선생의 성을 딴 데서 유래했다”며 “광양은 전국 최초로 김 양식이 도입된 곳인 만큼, 광양 김 또한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고 강조했다.

수산식품 가공 전문기업 ㈜김이가와 전남도청서 투자협약 체결

‘김’ 양식 도입한 광양, 조미김 생산 공장 설립으로 새로운 도약 기대



이어 “이번 협약이 광양 김의 역사적 의미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는 기업과 긴밀히 협력해, 광양 김의 판로 개척과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지난 3월 ㈜원플러스와 112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맺는 등 트럼프 2기 관세정책에 따른 산업 위기 속

에서도 투자유치 실현을 목표로 전략적·공격적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광양/신선호 기자

광주시, 직장 맘·대디 고충 해결 앞장선다

일자정양립본부, 고충해결단 운영... 집안 정리 등 무료 지원

광주시 일자정양립지원본부는 지역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장맘·대디(육아휴직자 포함)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찾아가는 고충해결단’을 운영, 분야별 맞춤 전문코칭을 지원한다.

‘찾아가는 고충해결단’은 일과 가정 생활을 병행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과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 ‘정리코칭’과 ‘심리코칭’ 분야로 나눠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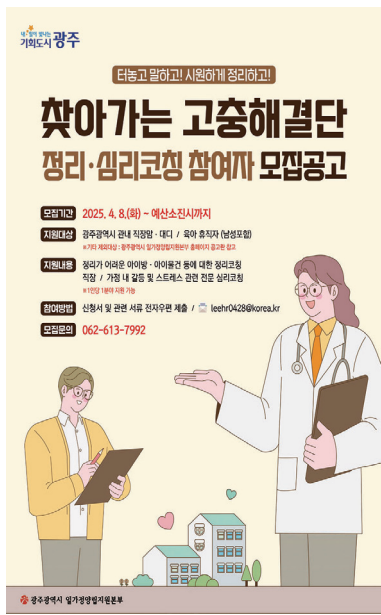
상담·진행비는 전액 무료이며, 신청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면 전문가와 조율해 결정한다.

‘정리코칭’은 전문가가 나서 공간 활용 방법을 지도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집안 정리를 함께 도와준다. 집안 환경 변화가 바로 체감돼 직장가 가정 생활을 병행하는 직장 맘·대디에게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해준다.

‘심리코칭’은 색채심리 전문상담사가 직장 내 대인관계, 업무 스트레스, 가정불화 등 어려움을 상담한다. 색채 분석 기법을 활용해 내면의 무의식을 탐구하고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감정을 해소한다.

신청은 이메일(leechr0428@korea.kr)로 접수받으며, 예산 소진 때까지 가능하다.

/신영길 기자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일자정양립 지원본부 누리집 공지사항(https://www.gwangju.go.kr/woman/boardList.do?pagelD=woman56&boardId=BD_000000016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건열 일자정양립지원본부장은 “직장과 가정을 병행하면서 오는 여러 스트레스와 고충들을 줄여 직장 맘과 대디가 더욱 균형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남도, 1천152억 원 대규모 투자로 어촌·어항 개발 속도

어촌신활력증진·어항시설 현대화·체험관광 활성화 등 11개 사업

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소규모어항의 안전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한다.

어항시설 현대화 사업은 237억 원을 투입해 방파제, 물양장, 선착장 등 필수 어항 시설을 건설하고, 어항 내 노후 시설물 보

수보강과 퇴적도 준설 등을 통해 어업인의 어업활동 편의를 제공한다.

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사업은 78억 원을 투입해 섬과 갯벌, 바다 등 해양자원을 활용한 어촌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어촌 체험휴양마을을 활성화를 위한 사무장 채용

도 지원한다.

또한 올해부터 어촌관광 콘텐츠 개발과 어촌계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도 새롭게 지원할 계획이다.

박태건 전남도 섬해양정책과장은 “어촌의 경제, 환경,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사업 지원을 통해 어업인 소득을 증대하고, 어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염선호 기자

전라남도는 어촌과 어항의 특화개발 및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올해 총 1천152억 원을 투입한다.

어촌신활력증진, 어항시설 현대화, 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등 11개 사업으로, 어촌경제 활성화와 어업인 생활환경 개선에 중점을 뒀다.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은 진도 서망항 등 34개소에 837억 원을 투입해 민간투자 연계한 어촌 경제플랫폼 구축, 어촌형 일

“아이 셋이면 연 12% 금리”... 다자녀 금융 혜택 ‘쏟아'

자녀 임신·출산·양육 시 우대금리, 자녀 수에 따라 달라

리 혜택이 더해진다. 둘째 아이 출산 시에는 연 11%, 셋째 아이 이상은 연 12% 금리가 적용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아이 출생 시에는 아이 수와 관계없이 연 12% 금리가 부여된다. 적금은 5만 계좌 한도로 출시됐다.

신한은행의 ‘신한 다둥이 상생 적금’은 결혼·임신·출산을 했거나, 자녀를 둔 가정에 최대 연 8.0%의 금리를 제공한다. 기본 금리 연 2.5%에 최대 연 5.5%p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2007년 이후 태어난 미성년 자녀가 2명이면 연 1.5%, 3명 이상이면

2.5%p의 우대금리가 주어진다. 적금 보유 기간 중 결혼·임신(난임)·출산하면 1.0%p가 추가 제공된다.

서울시 다둥이 행복카드 이용 실적이 있으면 연 1.0%p 부모급여·양육·아동수당 중 한 가지를 신한은행 본인 명의 계좌로 6개월 이상 수령하면 연 1.0%p, 신한은행 첫 거래 시 1.0%p가 추가된다. 가입기간은 12개월로 월 최대 30만원까지 입금 가능하다.

KB국민은행의 ‘KB아이사랑적금’도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0%의 금리를 제공하

는 대표적인 다자녀 우대 상품이다.

국민은행 위경담 직원들이 기획한 상품으로 출시 초부터 ‘맘 카페’ 등에서 입소문을 탔다. 기본금리 연 2.0%에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최대 4.0%p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국민은행 입출금 통장으로 아동수당 6회 이상 수령 시 3.0%p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가입 시 1.0%p를 추가로 준다.

다자녀 가정에 대출 금리를 우대해주는 곳도 있다. 하나은행의 ‘다둥이 전세론’은 미성년 자녀가 2명이면 전세대출 금리를 0.1%p, 3명 이상이면 0.2%p 우대해준다. 국민은행의 ‘KB 다둥이 전세자금대출’도 자녀 2명 이상이면 0.15%p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뉴스

“경관직불금 혜택 받으세요”... 5월15일까지 접수

“폐적한 농촌 경관 보전하고 직불금 혜택 받으세요”

전남도가 아름답고 쾌적한 농촌경관 조성을 위해 경관보전직불제 신청을 5월 15일까지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경관보전직불제는 마을경관보전추진 위원회를 구성해 시장·군수와 마을단위 경관보전 협약을 맺고, 지급 대상 농지 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 또는 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경관작물은 메밀, 유채, 자운영, 헤어리베치, 해바라기, 코스모스 등이고, 준경관작물은 밀과 보리,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준경관 초지작물은 경관·준경관 작물 중 사료작물로 활용이 가능한 작물이나 목초를 말한다.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신청 대상이고, 농가당 지급한도 면적은 농업

인의 경우 30ha, 농업법인의 경우 50ha다.

주요 지원내용은 경관작물의 재배·관리에 따른 추가 발생 비용 또는 소득의 감소분 등을 고려해 경관작물은 ha당 170만원, 준경관작물은 ha당 100만원, 준경관 초지작물은 ha당 45만원 지급한다.

지원을 바라는 농업인 등은 마을단위 마을경관보전추진위를 구성하고 경관보전직불제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읍면 농정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 시 지역 축제·농촌관광 등 연계 추진 실적과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김현미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경관보전직불제가 농촌 경관 가치를 높이고 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신청 자격을 갖춘 농업인이나 법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채일 기자

